

은행, 내년부터 현금성 외화 비축해야

금융위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예고
외화 LCR 규제 2019년 80%

전 은행 적용... 외화부채 규모 작은 은행 등 면제

규제 비율 차등 도입 산은, 2019년 60%까지만

내년부터 금융위기를 가정한 상황에서 은행이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제방안이 도입된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미국 기준금리 인상, 중국 금융 불안, 국내 경제 여건 악화 등 대내외 악재가 산적한 가운데 금융당국은 은행의 선제적 대응 능력을 키워 금융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외화 LCR 규제비율은 점진적으로 상향해 2019년 8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외국은행 국내지점이나 외화부채 규모가 작은 은행, 수출입은행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은행 성격에 따라 규제비율도 차등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개정안을 예고했다.

금융위는 외화 LCR 규제를 공식 규제 도입하고 자율 관리가 가능한 규제, 중복 규제 등은 폐지한다.

외화 LCR은 백런던 등 유동성 위기



돋보기를 내려두고 25일 오전 서울 중랑구 면목초등학교에서 열린 '학교로 찾아가는 실버정보화 교육'에서 어르신들이 컴퓨터에 대해 배우고 있다.

상황에서 발생할 '순환금융' 대비, 시장에 즉시 처분할 수 있는 '고유동성 자산'의 비율이다.

정부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만기불일치, 자산 안정성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외화 LCR 모니터링을 실시 중이다.

현재 최저지도비율은 일반은행 50%, 특수은행 30%다.

바젤 권고 사항인 만큼 지금까지는 은행의 외화 LCR이 지도비율보다 낮아 별도의 제재는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규제비율을 맞추지

못하는 은행은 제재를 받게 된다. 외화 LCR은 내년 1월부터 모든 은행에 규제 적용된다. 단 은행별 특수성 등에 따라 규제비율을 차등적으로 도입된다.

일반은행의 경우 내년 60%에서 매년 10%포인트씩 상향조정해 2019년 80%까지 올린다.

기업은행, 농협, 수협 등 특수은행은 내년 40%에서 2019년 80%까지, 산업은행은 내년 40%에서 2019년 60%까지 상향시킬 계획이다.

총 부채 중 외화부채가 5% 미만인

고 외화부채 규모가 5억달러 미만인 은행의 경우 규제 적용 대상에서 면제된다. 지난해말 기준 전북은행, 제주은행, 광주은행이 이 해당된다.

또 공적수출신용기관인 수은과 외은 지점도 각각의 특수성을 감안해 외화 LCR 규제를 받지 않는다.

외화 LCR 비율 1~2회 위반시 해당 은행은 사유서·달성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3~4회는 매 회당 5%씩 규제비율 상향, 5회 이상일 경우엔 규제 달성시까지 신규차입 정지 제재가 가해진다.

외화 LCR은 내년 1월부터 모든 은행에 규제 적용된다. 단 은행별 특수성 등에 따라 규제비율을 차등적으로 도입된다.

구조조정 대상 '대기업 살생부' 내주 공개

개정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적용된 '2016년 대기업 정기 신용위험평가'가 다음주 중 공개된다.

24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올해 처음 도입한 기업들의 이의제기 절차가 거의 마무리됐다"며 "이의제기 신청한 기업들이 많지 않아 정기 신용위험평가 최종 결과를 다음주 안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 정기 신용위험평가는 통상적으로 매년 4월에 시작돼 7월말께 결과가 공개된다.

금감원의 신용평가는 기업을 A~D의 4개 등급으로 나누고, 이 가운데 C등급은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개선), D등급은 법정관리(기업회생 절차) 대상으로 분류한다.

지난해는 대기업 54곳(상반기 정기평가 35개·하반기 수시평가 19개)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됐다.

올해는 새로운 기촉법이 처음 적용되면서 기존의 신용공여 한도를 없애 일부 중소기업까지 신용평가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기업들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자격도 부여했다.

이의제기 절차는 주채권은행에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C·D 등급 기업에 일종의 소명 기회를 주는 것이다.

해당 기업들은 이의제기 기간 중 채무상환능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채권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채권은행들은 이들 기업들이 제시

한 자구계획 등을 토대로 D등급을 C등급으로, C등급을 정상기업 수준인 B등급으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D등급을 받는 기업은 금융권의 지원이 전면 중단되면서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밖에 없다.

금융권에서는 처음 생긴 이의제기 절차로 인해 올해 정기 신용위험평가의 경우 7월을 넘겨 8월 초·중순께나 발표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구조조정 대상으로 통보받은 기업 중 실제 이의제기를 신청한 기업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권은행으로부터 구조조정 대상이라는 통보를 받은 기업은 이의제기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실제 신청을 한 기업이

"이의제기 많지 않아" 중기 평가는 7월~10월 진행

많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채권은행들의 재평가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 이의제기 절차가 생각보다 빨리 마무리 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달말 대기업 대상 신용위험평가를 마무리한 뒤 7월부터 10월까지 중소기업에 대해 신용위험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반기 중 이뤄지는 대기업 수시 신용위험평가 실시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수시 신용위험평가는 매해 국내외 경제상황을 고려해 필요시 진행된다.

지난해는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이슈가 대두되며 12월말 대기업 수시 신용위험평가를 발표했다. 수시평가에서 11개사가 C등급, 8개사가 D등급으로 추가 선정됐다. /뉴시스

6월 수출물량 3.9%↑ 금액 6.4%↓

"저유가 여파 지속"... 수입물량 2.3%↑ 금액 8.6%↓

지난달 우리나라의 수출물량이 증가했으나 수출금액은 감소하는 현상이 지속됐다. 저유가 지속에 따른 단가 하락으로 전체 수출금액은 줄어든 것이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6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물량지수는 141.62(2010=100기준)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3.9% 상승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수출물량지수는 수송장비, 일반기계 등이 감소했지만 전기 및 전자기기, 화학제품 등이 증가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출금액지수는 112.7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6.4% 줄어 들었다. 수출금액이 물량에 가격을 곱해 산출되는 점을 감안할 때 수출금액지수 감소는 국제유가와 제품단가 하락 등 가격요인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품목별로는 화학제품(15.8), 전기 및 전자기기(9.4%) 등이 증가해 물량지수가 늘어난 반면, 금액지수에서 석탄 및 석유제품(27.2%),

제1차 금속제품(8.3%), 일반기계(8.0%), 수송장비(8.0%) 등의 하락 폭이 컸다.

지난달 수입물량지수 역시 118.85로 전년동기 대비 2.3% 늘었고, 수입금액지수는 93.7로 8.6% 줄어 들었다.

교역조건지수는 수출가격(-9.9%)보다 수입가격(-10.6%)이 더 많이 하락해 22개월째 개선세를 이어갔다.

지난달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100.86(2010=100기준)로 전년동기 대비 0.8% 상승했다. 지난 2014년 9월 0.6% 상승한 뒤 22개월 연속 개선된 것이다. 수출상품 한 단위 가격(달러 기준)으로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이 이전보다 늘었다는 얘기다. 다만 전년동기 대비 증가폭은 2014년 9월(0.6%) 이후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수출로 벌어들인 총액으로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을 나타내는 소득교역조건지수는 수출물량과 순상품교역지수가 모두 상승한 영향으로 전년동기 대비 4.7% 상승한 142.84를 나타냈다. /뉴시스

미래부, 휴먼케어 콘텐츠 육성에 50억 투입

미래창조과학부는 차세대 유망산업인 '휴먼케어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올해 50억원을 투입해 콘텐츠 10여종을 개발한다고 25일 밝혔다. 휴먼케어 콘텐츠는 병원 치료의 보조와 예방에 중점을 두는 콘텐츠로 고령화 시대를 맞아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는 3D 템스(Depth) 기반 운동코칭 시스템, 인공지능(AI) 기반 노약자 감성 연계 로봇 등 9종을 선정했다. 다음달 중 2종을 추가 선정한다. 선정된 과제는 2년에 걸쳐 업체당 4억원을 개발비로 지원한다. /뉴시스

'부보금융사' 16곳 경영 등급 하락

저축은행 등 29곳 등급 상승

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를 내는 금융회사 중 16개 회사가 경영위험에 더 취약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계기업과 조선·해운업의 구조조정, 중국발 금융쇼크 등이 원인인 것으로 풀이된다.

예보는 25일 '2015년도 부보금융회사별 경영위험 차등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280개 회사 중 45개사에 대한 등급을 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업권별로 볼 경우 ▲국내은행 3곳 ▲순해보험사 2곳 ▲저축은행 2곳 ▲금융투자사 5곳 ▲외국계은행 4곳 등

의 등급이 떨어졌다. 금융투자업계의 경우 채무보증규모 확대 등에 따른 신용위험액이 증가했다.

국내은행의 경우 순이자마진(NIM) 하락 등으로 은행업권 손실회복능력이 낮은 수준으로 유지됐다.

등급이 가장 많이 상승한 업권은 저축은행(12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투자업계(11곳)와 국내은행(3곳), 순해보험사(2곳) 등도 뒤를 잇는 등 모두 29곳의 등급이 상승했다.

저축은행의 경우 이자수의 자산 및 순이자마진 증가 등으로 당기순이익 증가추세가 지속됐다. /뉴시스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